

법적 장애물 사라져...나주 SRF발전소 가동 절차 들어갈 듯

나주 SRF 가동 적법 판결 의미와 전망

주민 반대로 4년 가까이 멈춰선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고행폐기물연료(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이 임박해졌다.

법원이 SRF 열병합발전소 운영사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개시 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난방공사측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난방공사는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으나 법적 장애물이 모두 사라졌다는 판단 아래 발전소 가동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현)는 15일 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난방공사는 지난해 12월 나주시에 사업 개시 신고를 했지만 반대로 항소

난방공사, 발전소 가동 시기 저울질...내부 절차 거쳐 판단할 듯
나주시, 설명회 등 거쳐 항소 여부 판단...수백억대 손해배상도 부담

송을 냈다.

난방공사는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을 거친 뒤 조만간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승소로 법적 장애물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SRF 발전소를 가동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난방공사 관계자는 "법적 판단이 나왔으니 발전소를 가동해도 위법이 아닌 상황"이라면서도 "판결문 분석과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가동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발전소 인허가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나주시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

으로 보인다. 난방공사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이길 경우, 나주시와 나주시장 등 인허가 담당 공무원은 수백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1심에서 패소한 나주시는 소송 결과를 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와 만나 공유했던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SRF 발전소와 LNG 발전소를 모두 갖추고 지난 2017년 준공했다. 난방공사가 나주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에 집단 열원을 공급하고 전기를 생산·판매하기 위해 건설했다. 사업비 2700억원이 투입됐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지난 2017년 8월 시운전을 시작, 12월 준공 후 정상 가동에 들어가야 했지만, 광주권 연료 반입 문제와 SRF 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 악영향을 우려하는 주민 반대로 역화전연가

혁신도시 주민들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지난 5일 법원에 시민 1만5950명이 연명하 SRF 발전소 가동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은 탄원서에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한 난방공사의 SRF 시설에 대해 나주시가 공익 우선에 가치를 두고 '사업개시 수리'를 거부한 것은 환경과 생명 존중의 시대정신에 부합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7월 SRF 열병합발전소 시험 가동 과정에서 진행된 환경영향 조사결과, 모든 항목에

서 오염물질은 법적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다. 조사는 총 6개 분야, 66개 항목에 대한 측정·분석 방식으로 이뤄졌다. 일반대기와 굴뚝의 대기오염물질은 대기오염 공정시험 기준을, 악취는 악취공정시험기준을, 소음은 소음-진동 시험 기준을, 폐수는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을, SRF는 고행연료제품 품질시험 분석방법이 준용됐다.

측정 장소는 대기는 사업장 주변 13개 지점, 굴뚝은 1개 지점, 악취는 사업장 부지 경계 및 주변 지역 4개 지점, 소음은 사업장 부지경계 3개 지점, 폐수는 사업장 폐수저장조 1개 지점, SRF는 연료 저장동 1개 지점에서 이뤄졌다.

환경영향조사 결과 6개 분야(대기질·악취·굴뚝·소음·연료·수질), 66개 항목 모두 법적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지역 현안 시민과 함께 푼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15일 오후 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민관합치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해 협치협의회 위원 및 분과위원장에 위촉장을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상생일자리재단 설립 당위성 인정...경제성은 미흡"

광주시, 설립 타당성 용역 보고서 업무 중복·조직·재정 부담 등 문제

'광주형 일자리' 핵심인 노사상생 논의의 기구인 광주상생일자리재단의 설립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경제성이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15일 광주시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실시한 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노사 상생 논의의 기구라는 설립의 당위성은 인정되나, 경제적 측면 등 일부 수정·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상생일자리재단은 노사 상생 방안을 논의하고 노동정책을 담당하는 노사정 합의 기구다. 보고서에서는 재단이 수행할 사업이 제도적 요건을 충족

하고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노동정책 연구, 노사상생 등 차별성을 더욱 부각하고 추가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하지만 비용, 인력, 조직 구성 등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경제성 분석 결과 연평균 6034만원, 5년간 1억 9265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재원 규모는 연평균 53억원이지만, 광주시가 책정한 출연금 규모는 연평균 47억원으로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보고서는 기관 설립으로 5년간 52억원(연평균 10억원)의 비용 증가가 예상돼 재정자립도(2019년 기준 37.89%)가 낮은 광주시의 재정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의 재정 상황과 재정 자부도, 지방채 발행 비율 등을 고려하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기는 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시의 직영 운영 시 비용 절감 효과가 크지 않고, 민간 위탁과 비교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

적도 나왔다. 정책연구 사업의 경우 광주전남연구원과 업무가 중복되는 등 지역 유사 기관과의 업무 중복으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구와 일자리 관련 기관의 업무에 대한 추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년 이전 정원 22명 3개 팀, 2024년 이후 정원 40명 4개 팀으로 설계된 조직 구성안도 팀장급 이상 관리직 비율이 정원의 22.7%로 다소 높고 소규모 조직이 분부장과 같은 사무국장을 별도로 두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재단 설립 과정에서 노동계와의 갈등 가능성도 있어 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생산 유발 66억원, 부가가치 유발 40억원, 취업 유발 192명의 기대 효과가 전망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60+교육센터' 공모 7년 연속 선정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 뽑혀

전남도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하는 '60+교육센터' 공모사업 취업지원형에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가 7년 연속 국비 지원 위탁 기관으로 선정됐다.

올해 60+교육센터 사업에 전국 23개 기관이 신청해 15개소가 선정됐다. 60세 이상 어르신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어르신의 취업 역량을 높여 기업과 민간이 원하는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맞춤형 전문교육기관 운영사업이다.

7년 연속 공모에 선정된 기관은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를 포함해 2개소다. 이는 다년간 노인 취업교육과 취업실적을 높게 평가받고, 특히 전남도가 매년 도비 예산 지원을 하는 점이 가장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전남도 60+센터 총사업비는 8400만원으로 지역적, 사업적 특성에 적합한 농산물 전처리과정, 문화재 발굴, 환경위생관리원, 시험감독관 양성·

파견, 시니어뇌블럭지도사, 정리수납전문가 양성 과정 등 11개 과정의 취업 지원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상 교육생은 292명이다.

특히 최근 취업 유망직종으로 수요가 높고, 자격증 취득이 필요한 정리수납전문가 양성과정을 신규 개발해 자원봉사, 사회참여, 취업 연계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해엔 취업형 교육 수요 인원 394명 전원 취업을 성사시켜 100%의 취업 연계율을 달성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 1500명이 직무·소양교육을 이수했으며, 2019년 운영 실적을 높게 평가받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노인취업교육센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박환주 전남도 노인복지과장은 "국비 지원 위탁 기관 선정으로, 어르신들이 적성과 경륜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받아 취업의 꿈을 이루길 기대한다"며 "인생 100세 시대에 맞춰 건강증진과 소득 창출에 도움이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CJ올리브네트웍스·광주과기원, AI 인재양성 협력

광주시와 CJ올리브네트웍스가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광주시는 15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CJ올리브네트웍스, 광주과기원(지스트)과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AI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전문인력 교육,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AI 빅데이터 분석 등 종합 정보기술(IT) 서비스 분야 기술·정책을 조언하고 인재 육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광주에 제2 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인공지

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CJ그룹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고 있다.

지스트는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CJ올리브네트웍스와 산학 공동연구 등을 추진한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시가 만들고 있는 'AI 고속도로'가 완성되면 다양한 산업이 속도를 내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며 "CJ올리브네트웍스, 지스트가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발전에 함께하게 되면서 그 시너지가 일자리 창출, 소득 증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라도 영광 촌놈 이기원이 쓴

'회전목마 인생'

인생은 회전목마처럼 반복적으로 돌아간다. 단지 주인공이 다를 뿐이다.

"파리의 유명한 카페 한쪽 벽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한다. 걱정에는 두 가지 사유가 있다. 성공할 것이나 실패할 것이나. 만약 실패했다면 병이 들 것이나 안 들 것이나 걱정이고 병이 들었다면 살게 될 것이나 죽게 될 것이나 걱정이야. 죽게 된다면 천당이나 지옥이나가 걱정이야. 불행하게도 지옥에 떨어진다. 이미 가 있는 수많은 동료들과 약속하기에 비해 걱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다."

정가 13,000원

'밤벌레의 행복'

강석이의 유머인생 유머와 에세이의 만남

작은 책상과 TV와 노트북, 책꽂이와 장롱이 서로 기대고 있는 서재방인지 골방인지에 푸르그고 앉아 지나온 발자취를 회상하며 글을 써본다. 이왕이면 재미도 곁들여서 말이다. 이틀이면 유머형 에세이다. 별로 특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소중한 인생이라고 자위해본다. 이 책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가 12,000원

서점판매 | 광주(영풍문고, 충장서림, 세종문고, 초원서점, 나남문고, 글방문고), 순천(중앙서점), 목포(영풍문고) | 인터넷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예스24 (배송료 무료) | 전주(영풍문고, 웅진서적, 흥지사림, 민중서관), 김제(제일서림), 완주(혁신문고)